SN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사회학 장례식

"세상을 발전시키는 발견과 발명은 과학이 담당하지만, 그것을 윤리적으로 판가름하고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적용됐는지 감시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새내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 앞에선 한 교수의 말로, 당시에도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과 같은 취업과 동떨어진 학과를 선택한 이들에 대한 조롱이 넘쳐나던 때였다. 주눅 든 새내기들을 위한 위로였겠으나,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조롱을 넘어 '인문·사회계열 학과'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빠졌다.

신입생 모집 중지로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고 있는 대구대 사회학과가 다음달 '사회학 장례식'을 연다. 장례식은 오는 11월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사회학의 렌즈로 현대 사회를 조망하다'라는 주제로 사회학과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형식의 학술제다.

대구대는 지난 2021학년도 신입생 대규모 미달 사태 후 구조조정에 나섰다. 대학 체질 개선이란 명목으로 스포츠헬스케어, 웹툰 전공 등 실용학문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 사회학과는 물론 생명공학, 통계학과 등 자연계열 신입생 모집도 중지했다.

대구대 사회학과 장례식처럼 인문·사회계열의 위기는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역대학일수록 그 위기는 더 두드러진다. 지역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축소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등 복합적인 원인이다.

더불어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방점으로 하고 있어 비인기 학과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취업 등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입시 구조에서 인문·사회계열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사회학은 사회에 속한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한 학문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은 다양한 문제들이 실제로 사회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질문 한 번에 모든 걸 답해주는 인공지능 뒤에는 인공지능이 문제 되는 발언을 하지 않게 학습데이터를 걸러주는 저임금 노동자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가려지고 지워진 것들이 산재하기에 그 이면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인 사회학을 시장 논리에 의해 폐과해서는 안 된다.

#SnackNews #사회학장례식 #박소영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맑은 하늘 아래 빨갛고 노랗게 물든 가을 숲길을 가족, 연인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진일보가 산림청 선정 '전국 숨은 오색색명품숲길' 5선을 소개한다. △선녀가 내려와 쉬었다던 가평 연인산 명품계곡길 :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229-41 △자연을 그대로인 인제 방태산 아침가리 숲길 : 인제군 방태산길 9 △조용한 마을 정취의 예산 내포문화숲길 :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 산40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함양 상림숲길 :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49 △이색적인 경관이 절경인 제주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숲길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하루 세끼 밥으로 고기를 주겠다'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국방부 정보총국이 이날 러시아군을 상대로 운영하는 투항 핫라인 '나는 살고 싶다'를 통해 북한 군인에게 투항 시 쾌적한 환경을 보정하겠다며 회유에 나섰다. 한편, 러시아에 북한군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남북 대리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지의 공간인 우주의 아름다움을 담은 '2024 올해의 천체 사진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최근 호주 사진상 위원회는 태양계, 심우주, 천체풍경, 원격 이미징 등 각 분야별 우승작을 선보였다. 태양계 수상작인 '엑스마우스 하늘의 해바라기'의 필 하트 작가는 엑스마우스 상공의 일식을 세밀하게 촬영, 태양 코로나를 포착했으며 심우주 수상작인 '초신성 잔재'의 얀 세인티 작가는 초신성 잔해의 보기 드문 모습을, 천체풍경 수상작 '뉴질랜드 에그몬트 국립공원'의 카반 채이 작가는 은하수가 화산설원을 배경으로 한 마법 같은 사진을 담아냈다.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2024 프로야구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4차전이 지난 26일 대구 연호동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가운데, KIA가 9대2로 승리했다. 두 팀은 28일 KIA의 홈구장 광주KIA챔피언스필드에서 운명의 5차전을 펼친다. 현재까지 전적은 기아가 3승 1패로 앞서고 있다. 우승까지 마지막 한 발을 남긴 KIA는 이날 경기에 양현종,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좌완 이승현을 선발로 출격시킨다. KIA는 전신 해태타이거즈 시절인 1987년 이후 광주에서 37년 만에 우승 팡파르를 터트릴 기회를 잡았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